

식민지 국어 교과서의 글쓰기

-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을 중심으로 -

문혜윤*

|| 차례 ||

- I. 교과서의 글쓰기
- II. 연결과 반복을 통한 주체의 구성
- III. 확대하고 축소하는 조망의 시선
- IV. '설명'이라는 사회적 장르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최초의 국정 국어(조선어) 교과서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을 다룬다. 총독부 편찬의 첫 국어(조선어) 독본으로서, 통감 정치 시기의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을 저본으로 삼았고, 이후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3)과 『보통학교 조선어독본』(1923,1933)에 영향을 준 교과서이다. ‘국어 교과서’는 ‘국어’라는 말이 가지는 복잡한 함의와 ‘교과서’라는 체제가 표방하는 의미가 얽혀 있으므로 다방면의 해석을 부여해야 하는 텍스트이다.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식민지로 전락한 직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어’에서 ‘조선어’로의 표제 변화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국가어(민족어)를 가르치는 교육적 전달의 형태에 대해 함께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국어 교과서는 ‘국어’라는 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교과서 속의 단원 구성 및 제재 기술을 살핌으로써 어느 정도의 의미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과서’가 가지는 교육적인 목적은 단원의 배치나 기술의 방식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이에 교과서

* 고려대학교 강사

의 ‘글쓰기’라는 개념을 통해 대상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권1 누락, 권2 26과, 권3 22과, 권4 19과, 권5 19과, 권6 21과, 권7 20과, 권8 19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텍스트에 드러나는 ‘글쓰기’의 특징은 첫째, 단원들 간의 연결과 반복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인접해 있는 단원에서의 연결과 반복뿐 아니라, 동일 제제가 다른 권 사이에서도 연결되고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과 반복은 내용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한 인간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구성이나 다른 장르를 학습하는 식으로 일탈하기도 하는 느슨한 방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이유로 연결되는 과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것들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의 연결을 지지하고 보강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내용을 통한 근대인의 구성뿐 아니라 구성 요소들의 반복을 통한 근대인(주체)를 구성해 내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텍스트에 드러나는 ‘글쓰기’의 두 번째 특징은, 지도(地圖)의 축적처럼 확대하고 축소하는 시선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원의 내용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도(地圖)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고 조망하는 시선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단원들간의 관계(소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서 다른 단원에서의 복잡한 설명으로 전이, 같은 제제의 한 측면에 대한 설명에서 다른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방식)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시선은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을 이어 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즉 부모와 자식의 친밀함이 군민(혹은 학생)과 군수(혹은 선생)의 친밀함으로 전환되거나 국가나 천황에 대한 친밀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텍스트에 드러나는 ‘글쓰기’의 세 번째 특징은, 동일한 제제를 다루는 다른 교과서(특히,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와의 비교를 통해 명백해지는데, 주장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문장이 슬쩍 사라짐으로써 설명하고 해설하는 방식의 글이 전면화된다는 점이다. 설명하고 해설하는 방식은 일견 글쓴이(혹은 편찬자)의 중립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당대 신문과 잡지에서 범람하였던 논설과 비평이 가진 의미와 비교하였을 때, 중립적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점이 존재한다. 교과서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설명이라는 문종(장르)은 권위를 설명하는 쪽이 가지게 함으로써 통제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국어 교과서, 글쓰기,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연결과 반복, 주체, 확대와 축소, 지도의 시선, 설명, 권위, 통제

I. 교과서의 글쓰기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최초의 국정 초등 국어(조선어) 교과서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1911)을 다룬다.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통감 정치 기간에 간행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되었으며,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조선어과와 한문과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3)의 발간 이전까지 사용되었다.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1911)→『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1913)→『보통학교 조선어독본』(1923, 1933)으로 이어지는 국정 초등(보통학교) 국어 교과서는 ‘체제의 유지 및 지구 정정’, ‘체제의 재편 및 소재의 재사용’ 등을 통해 원뿔리는 공유하면서도 연결의 지점과 단절의 지점을 보여주었다. 같거나 비슷한 단원의 순서 및 배치로 인해 식민지 국정 국어 교과서의 큰 틀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과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사이에는, ‘학부’ 편찬에서 ‘조선총독부’ 편찬으로, ‘대일본도서주식회사’ 발행에서 ‘총무국인쇄소’ 발행으로 편찬과 발행의 주체 이동이 있었다. 이 작은 차이들은 각 교과서들을 다른 의미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교과서들은 우리나라 국정 국어 교과서의 효시에 해당한다. 대한 제국 학부가 편찬한 『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5), 『신정심상소학』(1896) 역시 국정 국어 교과서의 기원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국어’와 ‘교과서’의 복잡한 교호 작용 속에서 ‘국가의 말’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형식’을 제공한 국어 교과서의 시초는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보통학교용 국어 교과서들은 대한 제국 학부가 편찬한 『국민소학독본』, 『소

학독본』, 『신정심상소학』 등과는 다른 형식적 기반을 공유한다. 가장 특징적 지점이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의 권1에 등장하는, ‘한글 깨치기’에 대한 보다 분명한 목표 설정과 진전된 교수 방식이다.¹⁾ 이 책은 ‘국어’를 가르친다는 의식을 교과서 제목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낸 첫 교재이기도 하다.²⁾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권1이 누락되어 있으나 권2~권8까지의 전체 단원 구성을 비교하였을 때, 권1 역시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과 거의 동일한 체재를 띠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과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사이에 가로놓인 1910년 한일병합은 ‘국어’가 ‘조선어’로 변한 만큼 국어를 가르치는 교과서에 내밀한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

국어 교과서의 ‘국어’는 ‘국가를 대표하는 언어’란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는다. ‘국어’는 다른 교과 학습을 위해 습득해야 하는 국가 공용어이기도 하면서, 민족성을 드러내는 기제이자 민족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교과서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 의미가 파악되는 상징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교과서 편찬 주체가 ‘국어(조선

1) 박치범, 『체계화된 형식에 담긴 일제의 계몽 담론』, 『근대 국어 교과서를 읽는다』, 경진, 2014, pp.173-180 참조. 이 글에 의하면, 같은 시기의 『신정심상소학』과 사찬 교과서 『초등소학』에도 ‘한글 깨치기’를 위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신정심상소학』은 한문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초등소학』은 의미 중심 지도법을 채용하고 한자 익히기를 겸할 수 있는 진전된 방식을 택하였지만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과 비교해 보면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2) 김혜련, 『국정 교과서의 정치학』, 『근대 국어 교과서를 읽는다』, 경진, 2014, pp.138-139 참조. 이 글은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을 일본 문무성 편집국이 심상소학교용으로 간행한 최초의 국어과 교과서 『소학독본』(1904)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 “국어라는 교과 이름을 내걸고 편찬된 국정 국어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의 단순 모방이 아니라 국가, 실용, 수신 측면에서 근대적 지식을 구성하려는 개별적 목표를 가진 것이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보통학교 시행 규칙(1906년 9월 4일)에 적합한 ‘보통 지식’의 수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평가하였다.

어)’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국어 교과서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어’는 교과서를 기술하는 국가의 언어이기도 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구현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이는 ‘국어’가 교수 과정에 필요한 도구라고만 파악하기도,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서만 파악하기도 어려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국어’가 ‘조선어’로 격하된 후의 첫 교과서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 대한 연구는,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과의 비교 속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강진호는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에 대해 “조선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근대 지식을 보급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유리한 친일의식을 심어주는 게 교재 편찬의 궁극적 의도”³⁾였다고 지적하였고, 강제 병합 직후 이를 저본으로 하여 개편된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 대해서는 “천황제와 제국의 시선”⁴⁾이 전일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교과서가 편찬된 시대의 정치상·사회상은 교과서의 단원 구성으로 반영되고, 각 단원마다의 내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를 교과서답게 분석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출되는 결론의 타당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과서의 글쓰기’라는 틀을 통해 좀 다른 방향의 분석을 가해 보고자 한다. ‘글쓰기[écriture]’는 ‘개인의 언어 사용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개성’이란 의미를 포함한 ‘문체’보다 폭이 넓은 개념으로서, 개인의 문장에 영향을 끼치거나 개인적 문장의 누적으로서 나타나는 시대적·사회적 문장의 공통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과서의 글쓰기’는 교과서 편찬 주체의 정치적·사회적 담론과 정치의 작동 방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3) 강진호, 『‘국어’ 교과서의 형성과 일제 식민주의-『국어독본』(1907)과 『조선어독본』(1911)을 중심으로』,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 제이앤씨, 2011, pp.32-33.

4) 같은 글, p.42.

여전히 유효한 특질로 가질 수 있다. 교과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쌍방향 소통의 회로라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것(가치관, 세계관)의 일방적인 제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른 한편, 교과서 분석이 이데올로기 분석에 치중하게 되고, 그리하여 일제의 식민화 활동에 대한 지적, 친일이나 제국을 위한 가치 형성을 언급하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쉬운 이유 역시 ‘교과서의 글쓰기’가 가지는 특징에서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글쓰기’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내용상의 이데올로기를 해명하는 작업에 형식상의 담론 구조, 언술 방식을 함께 드러냄으로써 교과서가 담고 있는 사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은, 그 직전의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과 거의 비슷한 체재와 단원 구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간 연구자들에게 ‘자구정정본’ 이상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 드러나는 글쓰기의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어 교과서 형성의 한 측면을 해명하고자 한다.

II. 연결과 반복을 통한 주체의 구성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이하 『조선어독본』)은 권2부터 자모 습득이나 문장 연습의 단계를 벗어난 본격적인 줄글-권2~권4보다 권5~권8에서 한문의 양이 늘어나는-이 등장한다. 일정한 주제를 제목으로 내세워 기술하는 글들로 각 과가 이루어진다.

권2는 총 26과로 이루어져 있다. 1과 『동자1』은 가난한 집 아이 ‘복동이’가 소를 몰고 가면서도 책을 읽는 근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2과 『동자2』는 부잣집 아이 ‘순명’이 복동에게 학교 교재를 빌려주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선행을 이야기한다. 3과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특징을 아주 짚막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4과 『계』와 5과 『우와 마』는 닭과 모이주는 아이와의 유대를, 소와 말의 비교를 통해 서로의 형상이 다름을 인지하는 내용이 그려진다. 1과에서 5과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복동이’와 ‘순명이’라는 인물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복동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고(1과), 순명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제시한 다음(2과) 그들을 둘러싼 자연 환경(3과)과 그 속에서의 노동(가축 기름, 그러나 부잣집 아이 순명이는 가축을 통해 공부)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결은 다른 과에서, 다른 권에서도 반복된다.

바로 다음 과인 6과~7과는 『나자1』, 『나자2』라는 제목으로 연결되어, 학교 가지 말고 들에 가서 놀자고 하던 ‘게으른 사람’ 장 씨가 20년 후 부자가 된 친구 이 씨를 만나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8과~11과에서는 가족과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8과 『가』에서는 새가 보금자리를 얻어 것들이듯이 사람도 집을 지어 풍우한서를 피한다고 하면서 집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9과 『원포』에서는 뒤란밭을 꾸미는 이유가 사시로 꽃을 보고 근엽과 과실을 먹는 것 때문인데 그저 초목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한다. 8과와 9과만으로는 연결 관계가 희미하지만 다음 10과 11과의 『아가1』과 『아가2』는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아버지가 아침마다 일찍 나와 ‘원포’를 돌보시는 것을 즐거운 일로 삼으신다고 하는 지점에서 9과와의 연결성이 드러난다. 또한 아버지와 친한 옆집 의사가 있는데 그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점을 굳이 이야기한다. 집이 비록 가난하여도 병자가 없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점을 말한다. 이를 통해 8과에서 11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권 내에서의 평행적인 연결과 그러한 연결의 주기적인 반복은 다른

권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방식의 연결로 나타난다. 권2 13과 「엽서와 봉합」, 14과 「우편국」은 13과에서 엽서 쓰는 법, 편지 봉투 쓰는 법을 설명한 다음 14과에서 이 엽서와 편지가 우편국에 모여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의 집에 도착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두 과의 연결은 권3에 이르면 4과 「병자 위문」과 5과 「위문 회사」에서 선생님을 병문안 간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위문에 대한 감사 편지를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5과에서는 실제 편지의 예가 등장한다. 권4의 2과 「홍수」는 연일 비가 내려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옥동이와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산 위로 피난 가 밤을 지새운 이야기가, 3과 「홍수 한훤」은 홍수 소식을 듣고 수동이가 옥동이에게 보낸 문안 편지의 예와 옥동이의 답장의 예가 제시된다. 즉 권2에서는 엽서, 편지 봉투, 우편국 등의 근대적인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면, 권3과 권4에서는 병문안의 경우, 홍수의 경우 등 개별적인 사인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편지의 사례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학습이 구체화되었다.

권4에서는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4과 「조선의 지세」에서 조선이 반도라는 것, 조선 주위의 섬에 대해 이야기하며, 5과 「조선의 해안」에서는 만, 항구, 갑과 갯이 어떤 곳인지 설명한 다음 조선의 최대 항구 도시를 언급한다. 13과 「조선의 북경」에서는 북쪽 경계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2대강이, 두 강 사이에 장백산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세 개의 과를 통해 조선의 전체적인 구획과 경계를 표시한 다음 14과 「경성」, 18과 「평양」에서 현재의 수도와 옛 수도인 두 도시를 각각 설명한다. 그리고 권5의 2과 「5대강」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외의 또 다른 강을 언급하여 5대강, 10대강을 알려주고, 4과 「기후」에서 남북이 긴 조선은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의 기후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다. 12과 「평안남북도」부터는 행정구역별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평안남북도」에서 양잠과 목우가 성하다고 설명하고, 13과 「잠」에서 누에가 나방낭에서부

터 실을 뽑아내는 누에로 자라기까지의 과정을, 14과 「양잠」에서 아름다운 견직물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15과 「함경남북도」에서는 이 지방이 마, 명주, 소 등의 산출이 성하다고 설명한 후, 17과 「마」에서 여름철 의복으로 적당한 마를 언급하면서 마의 씨는 기름을 짜 비료로, 껍질을 벗긴 흰 줄기는 화약의 원료로 쓰인다면서 “마의 전체가 다 필요한 물질”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지는 18과 「폐물 이용」은 분노, 우마의 뼈, 누더기, 마루 아래의 먼지 등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다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천지간에 무용한 물질은 없다”고 강조한다.

과마다, 권마다 명백한 연결(인물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거나,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진다거나, 각 과마다 번호를 붙여 연속성을 드러내는 등)의 방식도 존재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연결의 방식도 존재한다. 권2 12과 「마」처럼 앞뒤의 과들과 연결되지 않은 채 동떨어진(동떨어져 보이는) 장르의 이야기가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백하지 않은 연결도, 다른 과에서의 명백한 연결을 통해 의미와 논리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한 시대의, 일정한 시·공간의 영향으로 ‘나’라는 인간이 형성될 수 있다. 집, 가족, 밭 가꾸기 등의 일과, 정직이나 근면 등의 일상 도덕(권2 12과 「마」, 권2 21과 「욕심 많은 개」, 권4 1과 「정직지리」, 권5 6과 「타인의 약사」), 일과의 시간 구획(권3 10과 「시계」), 직업과 근로(노동)의 가치(권3 18과 「직업」), 물질의 실용성(권4 11과 「재목」, 권4 12과 「식물과 공효」, 권5 18과 폐물 이용), 위생과 건강(권2 11과 「아가2」, 권3 4과 「병자 위문」, 권5 3과 「피부 양생」) 등을 통해, 근대인과 근대인의 생활을 구성해 내고, 그러한 논리의 반복을 통해 근대인이라는 인간의 형상과 관계를 만들어 낸다. 또한, 조선의 땅, 기후, 강, 경계 등을 언급하고 조선의 각 지방을 설명하며 각 지방의 특산물 등을 설명하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구성한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드러내는 논리는, 근대라는 시대가 혹은 식민 당국이 지향하는 가치일 터이다. 부모와 자식(새끼), 그들이 이루는 가족, 그리고 나와 고향의 관계 등은, 어떤 의미에서 직업과 노동, 실용성 등과는 가장 대척적인 지점에 위치하는 가치이다. 가장 정감적이고 끈끈하여 말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과 이윤과 실용이라는 논리로 계산하는 명백한 숫자의 세계가 개인의 정직이나 근면이라는 가치를 통해 하나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순적 가치의 조화로운 양립은, 글의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권2의 16과 「기차」는 형과 아우 사이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진 글이다. 그런데 이 가족 간의 대화에는 ‘가족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그들은 기차에 대한 객관적 정보만을 주고(형), 받고(아우) 있을 따름이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미묘한 공존을 드러낸다. 동경에 있는 친구가 경성에 사는 나에게 연락하기 위해 엽서나 편지를 써서 가까운 동경의 우체국에서 부치면 그것이 며칠 안에 경성 나에게 도착하는 것처럼(권2 14과 「우편국」), 그리고 신문에 게재된 가련한 여원의 이야기-여원의 나이 5세 때 목공인 아버지가 공사 중 사망하고, 여원의 어머니가 근근이 재봉일을 하면서 아들을 교육시켜 왔는데 그 어머니마저 병이 들어 4학년 인 여원이 학업을 폐지하고 어머니의 약값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생면부지의 옥희라는 여자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권4 19과 「옥희의 자선」), 세상의 모든 일, 지식, 관계, 생활은 연결과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결과 연결의 반복을 통해 근대 조선인이 구성된다. 어떠한 주체가 되라는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설정된 환경으로 둘러싸인 주체를 구성해 내는 방식이다.

Ⅲ. 확대하고 축소하는 조망의 시선

교과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불균등한 관계를 통해 지식이 이동한다. 즉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류(교과서, 선생님)가 지식이 없는 부류(학생)에게 말하는 것이 교과서의 존재 형식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문장이 비록 평서형이나 청유형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속의 모든 진술은 ‘가르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때로 그것은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조선어독본』 권2 7과 『나자2』의 서술자는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을 누구인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교과서를 읽는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끝맺고 있다. 질문과 대답이라는 이러한 직접적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과서는 기본적인 대화의 불평등성으로부터 시작하는(만들어지는) 매체이다.

많이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로의 불균등함은 『조선어독본』에 자주 드러나는 지도(地圖)의 시선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권2의 20과 『산상조망』은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마을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내용이다. 하천, 촌락, 삼림 등 지도 위에 표시되어야 하는, 실제의 눈으로 내려다 볼 때에는 눈의 한계로 인해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다. 지도는 일정한 구간 안에 있는 사물들을 가로와 세로의 일정한 비율, 즉 축척(縮尺)을 부여하여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그린 그림이다. 위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시선은, 실제의 인간이라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권3의 2과 『도화』는 봉숭아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과학 백과의 진술과 같다. “이것은 도화의 화도니라. 꽃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화변이라 하고 도화의 담홍한 아름다운 빛은 곧 화변의 빛이니 도화에는 5개의 화변이 있느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 ‘화도(畵圖)’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여러 종류의 그림을 통틀어 일컬음’이지만 다르게 풀이하면 ‘그림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지도(地圖)는 가로와 세로를 비율화하는 것이다. ‘실제’를 늘렸다가 줄이는 기술이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2의 16과 「기차」는 동산 위에서 기차를 구경하는 두 아이가 묘사되고, 바로 다음의 17과 「정거장」에서는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정거장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한다. 같은 소재가 권3에서도 반복되는데, 권3의 3과 「기차 발착」에서는 기차역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듯한, 기차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권3의 19과 「기차창」에서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창밖의 풍경을 묘사한다. 편지 역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다. 권2의 13과 「엽서와 봉합」에서는 엽서와 편지봉투 쓰는 법, 바로 다음의 14과 「우편국」에서 우체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데, 권3의 5과 「위문회사」에 이르면 바로 앞의 4과 「병자 위문」에서 병문안을 받았던 선생님이 그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편지의 실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권3의 11과 「유사탐문」은 편지와 그에 대한 답장의 실체가 등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같은 소재를 간단한 설명→복잡한 설명, 한 측면→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는 확장(‘늘리는’) 서술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서로 다른 영역의 것들을 이어붙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영역의 것들을 이어붙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비유(比喩)이다. 권3의 7과 「의복」, “금수에 깃털과 모피 있듯이, 사람은 의복은 입는다”처럼, 다른 영역에 속한 사물(존재) 사이의 공통점이 추출되어 동일한 자장 안에 묶인다. 두 번째 방법은 유비(類比)를 통한 것이다. 권2 16과 「기차」에서 형과 아우 사이의 대화가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과 지식이 없는 동생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가족의 관계가 사제의 관계, 집을 벗어난 학교에서의 관계로 확장된 경우이다. 가족 관계를 사회(국가) 관계로 확장하면서 가족 관계의 어떤

속성이 사회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이라 유추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수신’하면 ‘제가’가 되고 ‘치국’이 되어 ‘평천하’로 이어지는 유교식의 방식은 작은 것이 큰 것에 포함되는, 작은 것이 해결되어야 큰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관계이다. 그러나 『조선어독본』에서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작은 비슷한 점을 들어 다른 영역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 양 설명한다.

『조선어독본』은 주로 설명 위주의 글이 많아서 화자의 평가가 그리 두드러지게 삽입되지는 않는데, 권2의 마무리 부분인 24과~26과는 교훈 전달형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24과 『모심』은 정동과 수동이 낮에 나가서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가 문 앞에 기대서서 걱정하셨는데 형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이다. 이 과의 맨 마지막 구절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모에게 우러는 끼치는 자는 불효막대 함이로다. 공자 가라사대 부모 계시거든 멀리 놀지 말려 놀아도 반드시 방향이 있다 하시니라”로 끝맺으며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연결되는 25과 『아향』은 내 고향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음에도 고향에 대한 향수나 포근함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에 세워진 군청과 학교에 대해 서술한다. 그런데 “군수는 온후한 사람”이어서 “인민을 아들같이 사랑”한다. 군수가 부임한 뒤로 마을이 날로 번창하여 학교 건물도 새로 짓는데, 그곳의 “교사 6인”은 “우리들을 자제와 같이 친절히 가르”친다. 아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가, 인민과 군수, 교사 사이의 관계로 중첩되고, 이러한 중첩은 이어서 동물 사이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이어지는 권2의 마지막 26과 『엽부와 원숭이』에는 사냥꾼 총에 맞으면서도 새끼를 도피시킨 어미 원숭이 이야기를 기술하는데, 어미 덕에 목숨을 건진 새끼 원숭이들이 사냥꾼 집에 밤에 몰래 와서 어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야기이다. 새끼 원숭이들이 총으로 위협당해도 도망가지 않자 사냥꾼은 어미의 시체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는 작은 것이 큰 것 속에 포함되는 형태의

포함 관계가 아니라,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관계가 전환, 확장되는 유비의 관계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은 명확한 연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종의 비약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보다는 감정을 통해 독자들을 설득하게 된다.

‘지도(地圖)의 시선’으로 명명될 수 있을 시선(관점)이 다시 위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조망하는 지도(指導)의 시선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국어독본』과 『조선어독본』 사이에서 삽화는 큰 변화가 없이 세세한 부분에 대한 변경만 있는데, 유일하게 『국어독본』에는 없었던 삽화 하나가 『조선어독본』에 삽입된다. 권2 16과 「기차」에서 산 위에 올라선 두 형제와 그들이 내려다보는 뱀같이 긴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삽화이다. 그런데 마을을 내려다보는 주체가 두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마저 삽화에서 작게 처리되고 있는데, 기차의 모습과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또다시 조망하는 또 다른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地圖)라는 것은 입체의 물건을 평면으로 옮기는 것에 따른 ‘왜곡’을 언제나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도(地圖)의 사실성(사실인 척하는 성질) 위에는 그것을 ‘왜곡’하는 또 다른 지도(指導)의 시선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다.

IV. ‘설명’이라는 사회적 장르

『조선어독본』을 구성하는 글들은 ‘설명하는 글’의 분량이 현저히 많다.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하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 사상, 가치 등보다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에 주력하는 형태의 글이 많다는 것이다.

각 과의 주제로 선택된 사물이나 사건들은 사전(辭典)에서의 설명 방식

대로, 정의 내리는 방식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권3의 18과 『직업』에서처럼 “곡류와 채고를 지음은 농부의 직업이요, 어류를 잡음은 어부의 직업이니라”와 같이 서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 단위에서 범위를 넓혀 하나의 과에서, 그리고 다른 과와 연결되어서 설명되는 경우, 왜 이러한 요소에 대한 설명에서 저러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혹은 왜 굳이 이 부분만 설명하고 그만두는지 등 다루고 있는 내용적 요소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권3의 13과 『순서』에서는 “여하한 물건이든지 순서로 되는 것이니라”라고 하며, 식→의→주의 순서로 ‘순서’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 식(食)은 식탁의 상차림 안에서 설명의 대상을 연결해 나간다. 우리들이 먹는 밥→그 옆의 접시에 담긴 생선→그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소금과 감장. 의(衣)는 의복의 제작, 주(住)는 가옥의 건축을 설명한다. 권3의 18과 『직업』에서는 “곡류와 채소를 지음은 농부의 직업이요, 어류를 잡음은 어부의 직업이니라”고 시작하고 나서 농부가 곡류와 채소만 먹으면 신체가 약하여 노동에 감내치 못하고, 어류는 심히 맛이 있으나 매일 이것만 먹을 수도 없으니, 농부는 어부에게 곡류와 채소를, 어부는 농부에게 어류를 주어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목수와 니장(尼匠)은 가옥을 건축하는 직업이라”고 설명하고, 농부와 어부를 위하여 가옥을 건축하고 그 대신에 곡류와 채소, 어류를 받는다고 하면서 앞의 내용과 연결 짓는다. 설명의 예시 범위가 굉장히 좁다. 설명의 예시 범위가 ‘중립적’ ‘객관적’ 형태가 아니라 그 교과서를 서술하는 누군가의(혹은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 설명의 내용이 변형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자꾸 부모, 의식주 등의 가족, 생활 등과 관련된 예를 드는 것은, 주지와 예시(부연) 사이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거꾸로 예시의 속성(전체를 아우른다거나, 감정에 의해 연결된다거나)을 통해 주지의 옳음을 표시하려 하는

방식이다.

상관없는 듯이 보이는 것을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권3 16과 『해빈』은 해변이라는 공간에 선 서술자가 바다 쪽과 모래사장 쪽을 바라보며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연결한다. 바다 쪽의 배를 보면서 어선과 기선 등의 배의 종류와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모래사장 쪽의 아이들을 보면서 모래의 종류(백사, 소석, 자개 등)를 설명한다. 서술자는 이 두 방향의 것을 한 번에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것이며, 이 두 범주는 바다 주위라는 공간만 동일할 뿐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것임에도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권3 18과 『직업』은 직업이란 제목을 달아놓고 교환에 대한 것을 말한다. 권3 19과 『기차창』은 창밖의 정경을 묘사하다가, 철교 위를 지나는 소리를 기점으로 시선을 아래로 옮겨 하천과 그 주위를 묘사한다. 권3 21과 『빈계급가압』은 집 안의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집 앞의 시내로 나왔는데 병아리들이 물에 들어가 즐겁게 헤엄을 친다. 자신의 새끼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오리의 새끼였던 것이다.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동일성으로 묶이지만, 숨어 있는 시선이 두 가지의 다른 영역을 연결 짓는 것이다.

기차가 그치는 곳을 정거장이라 하느니라.

정거장에는 차표를 파는 데가 있으니 이 차표를 사 가지고 기차를 타느니라. 기차의 방은 일등과 이등과 삼등의 등분이 있으니 차표의 값은 일등이 제일 비싸고 삼등이 가장 헐하며 차표의 빛이 일등은 흰빛이요 이등은 푸른빛이요 삼등은 붉은빛이니라.

기차가 정거장에 오는 것과 또 정거장에서 떠나는 시간은 일정함이 있으니라. 미리 와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대합실이 있으며 또 정거장 여러 곳에 종이를 붙이고 대금과 시간을 고하니라.

그러하나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알아보지 못하니 눈으로 문자를 보지

못하고 또 남에게 묻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느니라.

『국어독본』 권2 17과 「정거장」의 전문이다. 『조선어독본』에도 역시 같은 글이 실려 있으나 맨 뒤의 밑줄 친 부분, “그러하나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알아보지 못하나니 눈으로 문자를 보지 못하고 또 남에게 묻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느니라”는 삭제되어, 정거장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만 남아 있다. 권2 17과 「정거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거나 삭제되면서 각 독본은 과의 순서가 변경되었다. 『국어독본』은 17과 「정거장」 이후 18과 「욕심 많은 건」, 19과 「태양력」, 20과 「산상조망」의 순서로 연결되나, 『조선어독본』은 18과 「태양력」으로 설명의 글이, 19과 「기원절」이 삽입되고, 20과 「산상조망」, 21과 「욕심 많은 건」이 배치된다. 19과에서 다루는 ‘기원절’은, 일본의 1대 천황인 진무 천황이 즉위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 이 날엔 문무관이 예궐진하(詣闕陳賀)하고, 국민들은 집마다 국기를 걸고, 각 학교에서는 축하 예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천황의 존재와 업적이 가공의 것이라는 설도 존재한다. 가공의 인물을 기념하여 고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행하는 예식은 그 인물을 실제의 것으로 만들어준다. 19과 「기원절」의 앞뒤로 배치된 설명의 글(17과 「정거장」의 작자 논평이 빠진 설명문, 18과 태양의 힘에 대한 설명문, 20과 기차가 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형제의 대화)은 기원절과 기원절에 기리는 인물의 가공성을 상쇄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직접적이고 권위적인 수사법”⁵⁾이다. 권위를 형성하여 통치하려는 서술자를 뒤에 숨기고 있다. 김현주는 1900~1920년대의 논설을 비판의 장르로 다룬 바 있다. 김현주에 따르면 ‘논설’은

5) 웨인 부스, 『소설의 수사학』, 이경우·최재석 역, 한신문화사, 1997, p.7.

비판의 장르인데, 비판의 태도는 “통치술의 증대와 통치 제도의 증식에 맞서는 반대편으로서, 혹은 상대방이자 동시에 적대자로서, 통치술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제한하며, 그 적당한 한도를 모색하고 그것을 변형시키며 그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방식”, 즉 “통치당하지 않으려는 기술”이라고 언급하였다.⁶⁾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지닌 논설은 “1910년대에 일본 유학생 출신의 엘리트들이 한편에서는 식민 권력에 대응해,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인 내부의 다른 사회적 세력 및 문화적 집단들에 대응해 권리와 자율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글쓰기”라고 하였다.⁷⁾ 김현주가 언급하고 있는 ‘논설’과 대척되는 지점에 『조선어독본』의 ‘설명’이 놓일 수 있다. 근대 계몽기 이후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등장하였던 논설들은 민간의 ‘공공영역’ ‘공론장’에서의 상호 의견 교환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면, 근대 국어 교과서에서 차용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국어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명의 장르는 보다 단선적인 형태의 주입이다.

때로 권2의 11과 『아가2』에서처럼 ‘나’의 진술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역시 뒤의 권으로 갈수록 시적인 형태의 진술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감각을 이야기하는 글들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된다. 이는 지식과 사실에 대한 진술 사이에 나(개인)에 대한 진술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주체나 시선이 등장함으로써 교과서 속의 진술을 균열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또 한편 교과서의 한계이기도 하면서 교과서를 통해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을 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일 뿐 실제 『조선어독본』을 에워싸고 있는 대부분의 목소리는 근대적 지식에 대해 설명하는 권위적인, 통치하려는 속성을 지닌 것이었다.

6)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p.39.

7) 같은 책, p.47.

V. 결론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에 수록되어 있는 글들은, 수록의 방식과 단원의 구성 등에서 몇 가지의 진술 및 배치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단원들 간의 내용상의 연결과 반복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인접해 있는 단원에서의 연결과 반복뿐 아니라, 동일 제재가 다른 권 사이에서도 연결되고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과 반복은 내용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한 인간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구성이나 다른 장르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탈하기도 하는 느슨한 방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이유로 연결되는 과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것들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의 연결을 지지하고 보강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내용을 통한 근대인의 구성뿐 아니라 구성 요소들의 반복을 통한 근대인을 구성해 내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도(地圖)의 축적처럼 확대하고 축소하는 시선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원의 내용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도(地圖)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고 조망하는 시선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단원들 간의 관계(소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서 다른 단원에서의 복잡한 설명으로 전이, 같은 제재의 한 측면에 대한 설명에서 다른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방식)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시선은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을 이어 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즉 부모와 자식의 친밀함이 군민(혹은 학생)과 군수(혹은 선생님)의 친밀함으로 전환되거나 국가나 천황에 대한 친밀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동일한 제재를 다루는 다른 교과서(특히,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와의 비교를 통해 명백해지는데, 주장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문장이 슬쩍 사라짐으로써 설명하고 해설하는 방식의 글이 전면화된다는 점이다. 설명하고 해설하는 방식은 일견 글쓴이(혹은 편찬자)의 중립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당대 신문과 잡지에서 범람하였던 논설과 비평이 가진 의미와 비교하였을 때, 중립적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점이 존재한다. 교과서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설명이라는 문종(장르)은 권위를 설명하는 쪽이 가지게 함으로써 통제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국정 교과서의 편찬 주체였던 총독부의 교육적 의도는 단원의 내용에서뿐 아니라 글의 진술과 배치와 단원의 구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글쓰기의 방식은 동시대의 민간 독본과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두드러질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후 이어지는 국정 조선어 독본들에서도 문학적 제재의 수용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 이는 문학 위주로 재편되었던 당대 민간 독본이나 문법집이 가졌던 것과 다른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는 추후에 보강되어야 할 연구의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강진호·허재영 편, 『조선어독본』1, 제이앤씨, 2010.

2. 논문 및 단행본

강진호, 『‘국어’ 교과서의 형성과 일제 식민주의-『국어독본』(1907)과 『조선어독본』(1911)을 중심으로』,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 제이앤씨, 2011.

김현주, 『사회의 발견-식민지기 ‘사회’에 대한 이론과 상상, 그리고 실천(1910~1925)』, 소명출판, 2013.

- 김혜련, 『국정 교과서의 정치학-『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을 중심으로』, 『근대 국어 교과서를 읽는다』, 경진, 2014.
- 박치범, 『체계화된 형식에 담긴 일제의 계몽 담론-‘교과서의 위상’을 통해 본 『보통학교용 국어독본』(1907)의 특징』, 『근대 국어 교과서를 읽는다』, 경진, 2014.
- 부스 웨인 C., 『소설의 수사학』, 이경우·최재석 역, 한신문화사, 1997.
- 송명진, 『개화기 독본과 근대 서사의 형성』, 『국어국문학』160, 2012.

Abstract

A Study on Writing in Korean Textbooks
during the Colonial Period

- With a focus on *Basic Reader of Joseon Language
for Primary School Students*(1911) -

Moon, Hye-Yoon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Basic Reader of Joseon Language for Primary School Students*(1911), the first government-designated Korean(Joseon language) textbook during the colonial days. Being the first basic reader of Korean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t was based on the original script of *Basic Reader of Korean for Primary School Students*(1907)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resident-general politics and influenced *Basic Reader of Chinese Characters at the Level of Joseon Language for Primary School*(1913) and *Basic Reader of Joseon Language for Primary School*(1923 and 1933). “Korean textbooks” demand interpretations across many different areas since the complex implications of “Korean” are intermingled with the meanings of “textbook” system.

Reflecting the situations right after Joseon fell into the state of colony, *Basic Reader of Joseon Language for Primary School Students* asks for the examination of format of educational delivery to teach the state language(ethnic language) as it is felt in the change of title from “Korean” to “Joseon language.” Korean textbooks need an inquiry into the ideologies that “Korean” intends to deliver, and those ideologies can be signified to certain degree by looking into the unit organizations and material descriptions in the textbooks. The educational goals of “textbooks,” however, can be found in the formal aspects of unit arrangement and description method. The present study thus decided to take a new approach to the subject through the concept of “writing” in textbooks.

Basic Reader of Joseon Language for Primary School Students consists of Volume 1, which is missing, Volume 2 and 26 sections, Volume 3 and 22 sections, Volume 4 and 19 sections, Volume 5 and 19 sections, Volume 6 and 21 sections, Volume 7 and 20 sections, and Volume 8 and 19 se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in the texts are as follows: first, connections and repetitions between units happen in high frequency. In addition to connections and repetitions between adjacent units, the same materials are connected and repeated between different books. Such connections and repetitions are, however, presented in a loose manner such as a devi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 of environments surrounding an individual or the study of a different genre, more often than in a way of deepening the content. In spite of it, however, there are sections connected through a clear reason, and they get to support and reinforce the connections in an unclear state. The textbook uses a method of organizing modern individuals(subjects) by repeating the components as well as through content.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writing” in the texts is the intervention of viewpoint to expand and reduce like the scale of map. It can be figured out through the viewpoint of embracing and viewing everything like a map that is directly displayed in the content of unit and also the relations between units(a transfer from a brief explanation about a material to a complex one in another unit and a connection from an explanation about an aspect of the same material to one about another aspect of its). Such a viewpoint of expanding or reducing makes it possible to put together elements of different areas. In other words, it creates a room for parent-child intimacy to be converted into people(student)-ruler(teacher) intimacy or for the intimacy to migrate to people-state or Japanese emperor intimacy.

The third and final characteristic of “writing” in the texts becomes clear by comparing the textbook with other textbooks dealing with the same materials(especially *Basic Reader of Korea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As the sentences that make an argument or voice an opinion secretly disappear, the writings of explanations and commentaries are pushed forward. The ways explanations and commentaries are presented may seem to reveal the neutral

attitudes of the author(or publisher) at a glance, but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neutral when compared with the meanings of editorials and criticisms that flooded newspapers and magazines those days. The style(genre) of writing called explanations, which record a high percentage in the textbook, is offered to the side that explains its authority, thus working as the power to control and suppress.

Key Word : Korean textbook, writing, *Basic Reader of Joseon Language for Primary School Students*, connection and repetition, subject, expansion and reduction, viewpoint of map, explanation, authority, control

문혜윤

소속 : 고려대학교 강사

전자우편 : sootnoon@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